
**2018년도 제2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회의록**

2018. 7.

기 획 조 정 실

(공기업담당관)

'18년 제2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회의록

〈 회의개요 〉

- ◆ 일 시 : 2018. 7. 3.(화) 15:00~17:00
- ◆ 장 소 : 신청사 8층 간담회장1
- ◆ 참 석 : 위원 7명 등
 - 당연직 위원(1명) : 재정기획관
 - 위촉직 위원(6명) : 김영남, 박한준, 윤정향, 이상근, 최승관, 황미선
 - 기타(5명) : 공기업담당관(간사), 교통방송 기획조정실장, 교통방송 미디어정책실장, 최진봉 교수(성공회대학교), 김경울 공인회계사(미래세무회계사무소)
- ◆ 진행순서 : 개회 → 안건 제안설명 → 질의·응답 → 심의·의결
- ◆ 안 건 : (가칭) tbs교통방송재단 설립·운영 타당성 검토
- ◆ 회의결과 : 원안의결

위원 발언 내용

○ 간사

- 위원장님이신 행정1부시장님과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다른 일정 관계상 부득이 참석을 못함에 따라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의거해서 서울시 재정기획관 박대우 위원님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음

(개 회)

○ 위원장 직무대행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회의를 시작하겠음
- 오늘 논의안건은 '(가칭)tbs교통방송재단 설립·운영 타당성 검토안' 한 건임
- 안건 제출 부서의 제안설명과 공기업담당관의 검토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응답 후 심의·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음

○ 교통방송 기획조정실장(제안설명)

- 방송사업자의 인지도보다는 콘텐츠 단위 소비가 증가, 다매체·다채널 환경의 구현, 인터넷 등 비방송 매체와 광고시장을 두고 경쟁을 해야하는 등 급격한 변화에 따른 미래대안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 서울시 산하 사업소로서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게 되기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고, 또 행정기관으로의 인력운영과 재무구조의 경직성에 따른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일례로 임기제공무원이 거의 90% 이상이 돼서 승진이라든가 전보라든가 파견도 불가해서 조직운영이 유연성이 떨어짐
- 그리고 tbs가 시로부터 부족한 재원을 전액 지원 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다양한 신규사업에 진출을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음.
- 재단법인의 형태로 전환하게되면 교통 FM의 상업광고 허가, 뉴미디어 플랫폼 관련사업, 방송 중계 및 편집 지원 등 다양한 신규사업을 통해서 재원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tbs가 시민의 방송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해 가면서 또 장기적으로는 시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취약점을 보완해서 독립된 기구로서 재단법인을 설립·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함
- 조직과 인력부분 설명
- 미디어환경 변화에 대응한 작고 효율적인 체계로 구축을 해 나가고자 함.
조직 확대는 최소화해서 현재 2실 4국 17부 1센터인 것을 3실 5국 17부로 구성할 계획임
- 출연기관으로서의 독립 감사기능을 수행하는 감사실과 디지털미디어지원실을 신설해서 다양한 플랫폼 운영, 저작권과 콘텐츠 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인력은 전체 448명으로 임원은 대표이사 포함해서 9명, 직원은 439명으로 현재와 동일한 규모임
- 채용은 공개채용방식으로 선발하되 현재도 방송 경험이 있는 경력경쟁방식을 적절히 병용해서 기존인력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임기제공무원은 재단법인 출범 시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면

- 가능하다는 법률자문을 받은 바 있음.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는 고용승계가 원칙이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의 타 부서로 전보할 수 있게, 그리고 전보를 하게 되면 해당인원은 신규채용을 할 계획임
- 설립 후 10년간 총 예산규모는 4,037억 원이며, 내년도 예산은 약 381억 원 규모임
 - 기본재산은 '18년 예산의 20% 정도인 60억 원 정도로 책정을 하였음
 - 사업분야의 적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공영방송 콘텐츠제작 부분은 문화영역으로서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대상 사업임
 - 2017년 예산이 353억 원을 기준으로 연간 산업분야에 651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매출 10억당 10.5명의 직·간접적 고용유발효과가 예상됨. 타 산업의 직·간접적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가 큰 것으로 예상함
 - 향후 5년간 사용예산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전입금 규모는 한 310억 원 정도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임. 이는 광고매출 등 수입 신장에 기인함. '19년도에 약 70억원, '28년에는 약 115억 원을 예상함
 - 현재의 사업소 형태는 시장의 직접지시를 받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시장님께서 관여하시지는 않지만 공정성을 형식적으로, 법적으로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임.
 - 재단이 설립되면 중립적이고, 공영성이 담보된 이사회를 구성해서 공공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함
 - 법인을 신설하고 나서 5년간 소요예산은 증가하지만 전입금 규모는 311억 원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18년 시 예산규모하고 비교해 볼 때 약 0.1% 수준임. 시의 재정건전성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함
 - 그래서 광고수입이 지속적으로 신장을 해서 출연금 비율은 '19년도에 82%인데 '28년이 되면 78%로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함
 - 서울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사업을 검토해본 결과 공영방송을 통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기능을 수행하는 중복기관은 없음
 - 연구결과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 했으며, 교통방송 노조에서 다양하게 의견을 제출하였고 그 의견은 보고서에 첨부되어 있음
 - 재단으로 발족을 하게 되면 구성원들과 시와 또 방통위, 행안부와 협력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이상 보고를 마침

○ **간사 (공기업담당관 검토 보고)**

- 공기업담당관 검토의견을 말씀드릴
- 현재 tbs교통방송은 서울시 산하 사업소로서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표는 개방임기제로 시장이 임명하고 있음.
- 공영방송으로서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이를 위한 재정자립도 제고 및 급변하는 방송환경에 유연한 대응을 위해서는 독립법인의 필요성이 그동안 대내외적으로 2015년부터 대두되어 왔음
- 서울과 수도권 시민생활 공영방송 콘텐츠 제작은 문화의 영역에서 주민복리에 기여하므로 지방출자·출연법에서 정하는 대상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함
- 수도권지역 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정보 제공 등의 지속적인 수요증가 등 지역 방송에 대한 수요는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하며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경제적 타당성의 측면에서 비용편익비는 0.5로서 1보다는 작지만 공익사업 성격상 0.5 이상이면 사업시행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다만, 이러한 결과는 비용의 증가는 보수적으로 가정한 반면 저희가 봤을 때 수입은 광고시장의 축소를 가정하고 있음에도 연평균 6%라는 증가로 낙관적인 숫자가 도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편익분석은 보다 현실적이고 보수적인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시에서 5년간 시 출연금 지원예상액은 교통방송의 현재 전입금 수준이 연간한 312억 정도 수준입니다. 향후 다소 증가되지 않을까 예상함
- 재단 인력에 대해서는 지난 1월 28일자에도 발표가 있었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계속 될 것이며, 시 사업소에서 재단법인으로 조직의 성격을 탈바꿈하는 만큼 시민과 재단의 새로운 비전과 목표 공유,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대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혁신TF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 마지막으로 교통방송 독립법인(안)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 그리고 조직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시도이므로 그게 걸맞는 지배구조 마련과 제일 중요한 재정의 자립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실질적인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재정자립이 필수적이므로 방송발전기금 지원과 상업광고 허가 획득, 해외사례를 참고한 시민기부금 확보 등 수익 확대방안의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시민이 원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양질의 콘텐츠 생산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이상 검토보고 마침

○ □□□ 위원

- 재단의 명칭을 교통방송이 아닌 '서울방송' 등 재단의 성격을 대표할 수 있는 명칭으로 바꿀 것을 제안함

- 현재 교통방송은 서울시에서 설립하여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정보의 제공, 특히 행정정보에 관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다고 봄.

- 독립법인화 시 교통방송의 정체성, 포지셔닝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궁금함. 교통정보 제공을 넘어서 서울시의 공공적인 행정정보를 제공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실제로 방송에서 이것을 구현하기는 쉽지 않음. 왜냐하면 행정정보 제공은 인기가 없기 때문임.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라디오 광고수익 배분구조는 독자적으로 영업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우리나라 광고시장, 특히 라디오 광고시장의 현실에 비추어봤을 때 광고시장 자체가 변하지 않는데, 광고수익이 기대대로 증가한다는 가정은 장밋빛 전망이 아닌가 싶음

- 독립성 제고를 위한 교통방송의 설립이라는 기본적인 취지는 찬성함
설립·운영 타당성 검토 시에는 재단법인 설립 시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서 지나친 낙관이나 허황된 목표는 정제되어야 함.

- 교통방송의 TV부분 활성화를 위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도 가장 직접적으로 시민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은 영상매체라고 생각함. TV부분에 대한 투자계획에 대한 부분이 보완되었으면 좋겠음

- 그 밖에도 각 매체별 사업 추진 전략이 수립되어야 함

- 진정한 독립재단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독립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독립을 위해서는 거버넌스가 매우 중요함.

기존 출연 기관들이 임원추천위원회 등을 통해 임원을 임명하는 방식보다 좀

더 새로운 방식으로 거버넌스 구축 시스템을 갖춰야 함.

- 지금 서울시의회의 구성을 보더라도 견제세력이 없음. 방송이 정치도구화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거버넌스 구성시 시민사회 또는 언론계 등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며,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계획이 궁금함

○ 김경률 회계사

- 광고시장의 축소가 현재 추세임에도 청취율의 증가로 인한 협찬수익(광고)의 증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였음. 그러한 근거는 최근 교통방송 수익현황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재의 수익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연구결과는 보수적으로 예상한 값임
- 재단으로 설립될 경우 상업광고에 대한 규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예상하여 광고수익의 증가 등 새로운 수익원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함

○ 최진봉 교수

- 방송의 공영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울시로부터 독립되어야 함. 서울시를 견제·감시하는 언론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함. 그렇기 때문에 000위원회에서 제시하신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대해 동의함
- TV활성화를 위해서는 독립법인화 이후 IPTV 사업자나 케이블 사업자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함. 현재 교통방송 TV는 채널번호가 290번대로서 시청률 제고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
- 적극적 홍보와 시민에게 어필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을 통해 시청률이 제고된다면 채널번호를 상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현재 교통방송이 스타아나운서 스타진행자에 의존하는 분명히 있으나 이것은 모든 방송사가 비슷한 상황임. 독립법인화가 이루어져야 시장의 정치적 판단과 무관하게 프로그램에 필요한 유명인사를 기용하는 듯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음

○ 남길순 기획조정실장

- 교통방송은 현재 허가조건 상 상업광고방송 외에 교통 및 기상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을 다룰 수 있음
- B/C분석 자료에 나와 있듯이, 교통방송은 행정정보의 제공 및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연간 약 10,922분을 광고대신 사용하고 있음
- 교통방송 사옥을 '16년 7월에 상암으로 이전했음. 약 150억원의 시설투자가 이루어 졌기 때문에 당분간 새로운 투자수요는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생각함

○ □□□ 위원

- 타당성 조사는 경제성 분석과 정책성 분석이 주요 골자인데, 현재 경제성 분석 결과 비용편익비가 0.5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임. 이러한 상황에서는 경제성보다 정책성으로 접근해서 교통방송재단 설립이 중장기 적으로 얼마나 임팩트가 있고 중요한 사업인지를 설득하는 전략이 필요함
- 정책적 측면에서 주장하는 독립법인화의 사유는 대부분 현재 교통방송이 겪는 한계(제약)를 들고 있음. 그것보다는 미래전망을 제시하며 교통방송이 나아가갈 방향과 사업의 중요성, 서울시의 다른 출자·출연기관과의 협업 방향, 시민사회 과급력 등을 제시해야함

○ □□□ 위원

- 재단 네이밍을 통해서 재단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낼 필요가 있음
- 방송(안) 계획에서도 교통방송의 메인콘텐츠가 드러나지 않고 있음.
재단설립 후 나아가 방향에 대한 사업계획 제시가 부족함. 추후 보강이 필요함
- 현재 비정규직으로 고용되고 있는 전문인력은 경험이 축적된 자원이므로 재단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고용승계 문제 등은 중요한 사안임. 노사의 합의가 잘 이루어져야 함

○ □□□ 위원

-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교통방송의 방송법 위반 논란의 경우에도, 교통방송의 독립법인화에 대한 필요성은 대다수가 동의하는 것으로 생각함

- 타당성 자료에서도 상업광고 문제가 단시간 내에 해결될 것으로는 가정하지 않고 있는데, 재단 설립 시 상업광고 허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어야 함

○ □□□ 위원

- 거버넌스 부분에 대해서는 최진봉 교수님 의견에 동감함. 시와 의회에서 추천을 받아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임원을 임명하겠지만, 임추위 구성 시 관련 전문가가 꼭 참여해야 할 것임
- 상업광고허가 획득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향후 조례 제정 등의 과정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시의회의 구성은 향후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시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과 현재 사업소 운영 대비 기대효과를 제시해야 함
- 타당성 검토 자료에서 재단으로 변화에 따른 효과가 구체적으로 서술되어야 함

○ □□□ 위원

- 미래 방송콘텐츠 5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함
- 민간영역에서 교통방송을 대체할 수 있지 않은지, 유사·중복성 부분에서 의문이 듦
- 주민복지증진 부분에 있어서 교통방송의 어떤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는지 설명이 필요함
- 재원의 독립성이 방송의 독립성에 연결되는데 시장이 바뀌거나 시의회의 다수당이 바뀌게 되어서 출연금 지원이 줄어들게 되면 재단의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음.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함

○ 교통방송 기획조정실장

- 재단명칭에 관해서는 교통방송의 역사성과 브랜드 가치를 고려하여 내부적인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음. 다만, KBS, MBC, SBS도 법인의 정식 명칭으로 불리고 있지는 않으며, 교통방송도 '시민의 방송 tbs'로 통칭하여 사용중임
- 고용승계 관련해서는 현재 임기제공무원은 재단으로 고용승계가 진행되며, 그 외 프리랜서 등은 출자출연기관 채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개채용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현재 재직 중인 자는 공채 시 전문성을 인정해서 가점을 부여할 계획임

- 상업광고가 불허된 이유는 교통방송이 서울시 사업소로서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불가하며, 동일한 이유로 방송발전기금의 지원을 받는 것도 부적정하다는 관계 기관의 입장임. 재단법인으로 전환 이후 협의를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서 현 시점에서 가부를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거버넌스 구축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전문가 참여 등 다른 투자 출연기관과 조금 다른 형태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교통방송 사업영역은 민간에서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함. 대부분의 방송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교통방송은 서울·수도권 시민의 생활에 맞추어져 있음
- 주민복지증진은 고용유발효과, 생산유발효과 등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보며, 시민설문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교통방송의 전문성, 공정성, 공익성 등이 높게 평가받고 있음. 교통방송은 앞으로도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교통방송 미디어정책실장

- 000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사보도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재허가 심의 시에 논의가 되었으며, 결론적으로는 보도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는 의견임
- 교통방송의 방송 편성 구성은 개국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음. 다만, 최근 특정프로그램의 화제성으로 교통방송이 시사분야에 편중된 것으로 오해를 받고 있음.
- 교통방송은 서울·수도권에 특화된 방송이기 때문에 타 방송보다 서울·수도권의, 예를 들면 태풍피해라든지, 폭설피해 등 지역에 밀착한 재난정보 제공 등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계속 비중을 두어 다룰 것임
- 방송발전기금은 예산에 대한 지원 개념은 아니며, 프로그램 제작에 기초한 지원금임. 따라서 방송의 운영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으며 프로그램이나 특집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해서 프로그램 개별로 지원 받는 형태임. 향후에도 재단의 예산 운영과 관련성이 크지 않음

○ 최진봉 교수

- 교통방송의 방송권역의 특수성이 인정되므로 민간의 대체 가능성이 낮다고 봄
- tbs eFM은 외국인을 위한 전용방송으로 이러한 사업영역도 민간은 없음
-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변경할 것을 강력히 권고함. 스마트폰으로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는 시대에 '교통방송'의 명칭이 갖는 메리트는 크지 않다고 생각함
- 재단법인화의 큰 장점은 조직 유연성에 있음. 현재 사업소 체제에서는 직원 채용 시 직책 및 업무까지 명기해서 채용을 해야하는데, 이런 경우 환경변화에 따른 조직의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움
- 주민복지증진 측면에서도 독립법인화를 통해 언론의 시정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밀착형 프로그램이 많아지면 이것은 결국 시민의 복리에 증진하는 결과로 이어짐

○ □□□ 위원

- Plan B를 준비할 필요가 있음. 현재 계획서상 기재된 콘텐츠로는 재단법인화를 통해 목표하는, 새롭게 추가되는 사업영역이 드러나지 않음
- 풍부한 콘텐츠에 대한 프로그램 계획을 보완하기 바람
- 현재에도 많은 방송사가 있는데 교통방송을 재단으로 전환하여 계속 유지시킬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답을 준비해야함

○ □□□ 위원

- 시민이 제작하고 시민이 소비하는 방송을 하겠다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이 아니라 독립적인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는지, 그런 구체적인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따른 세부전략과제들을 마련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 위원

- 독립법인화 목적인 방송의 독립성·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재단 조직내부에 옴부즈만 기능을 가진 부서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야 함

- 서울·수도권 지역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각 지역의 정보들을 제공한다면 충분히 콘텐츠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함

○ □□□ 위원

- 최근 교통방송이 인기를 구가하는 것은 소위 ‘마이너’ 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시민이 원하는 쓴소리를 속 시원하게 해주고 비판과 견제, 감시 역할을 잘 했기 때문임.
- 시민의 방송이기 위해서는 독립법인화 하는 것이 맞다고 봄.
- 다만 재원 전략 측면에서 상업광고수익 증대, 기부금 확대 등은 현실적으로 달성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이것을 정면으로 극복해 가는 방법 외에도 전통적인 방송의 수입 분야가 아닌 팟빵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틈새 시장을 통한 수익구조 창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B/C분석을 좀더 세밀하게 진행해서 과소과대 측정된 편익과 비용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 재정기획관(위원장 직무대행)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응답을 마치고 안건 심사를 하겠음. 공정한 심사를 위해 안건 제안 부서 관계자분들은 퇴장해주시기 바람
- 총 13개의 검토지표 마다 상·중·하에 체크를 부탁드립니다, 최종적으로 찬·반 여부를 결정하시고 검토의견란과 결정사유란에 의견을 기재해주시면 됨

○ □□□ 위원

-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임. 다만 설립·운영 계획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거론된 부분들을 보완하여야 할 것임 (다른 위원들 동의함)

(심사표 작성 및 결과 수합)

○ 재정기획관(위원장 직무대행)

- 심의결과 참석 위원 전원이 'tbs교통방송재단 설립·운영 타당성 검토(안)'에 대해서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2018년 제2차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폐 회)